

• 누가복음 4:16-19; 마가복음 5:35-43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은 비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비참한 것은 가난과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 하십니다(막 5:41). “일어나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운명을 헤치고 나아가라!” 주님이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 맞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세상 권세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눌림’을 양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눌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 자기중심주의가 만들어 낸 산물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상황, 시선과 평가,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 불안해하며 낙심합니다. 이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둠 속에 울부짖습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나락, 깊은 고통,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시인은 그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소망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택하신 백성이 왜 이토록 오랜 시간 고통당해야 하는지 항변했습니다(합 1:2-3).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더듬거리는 간절한 몸부림일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시 23:4).

악이 존재하는 한, 억압과 눌림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해도 세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고, 무서운 재앙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억눌릴 수도 있고,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은 중요하거나 보복하거나 싸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눌림에서 해방되었습니까?

- ① 나를 짓누르는 상황과 형편은 무엇입니까?
- 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